부흥은 무조건 의심하라!

(눅14:25-35)

25.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흥은 무조건 의심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부흥은 무조건 의심하라!'
부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요소이고, 의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은 전혀 반대편에 서있는 우리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흥, 교회가 많은 교인이 모인다는 이런 사실, 이것은

의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흥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십중팔구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싸이라고 하는 한국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4억 번의 클릭 횟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 영국의 차트에 1등 2등 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싸이라는 가수에게 나타난 이 부흥의 현상이 꼭 연예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런 부흥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선망하시면 안돼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일 위험한 게 사람이 많아질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그런 부흥에 대한 의심을 하십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보시면, 일관된 주님의 태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심이에요, 회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이키셔서 수많은 사람이 쫓아오는 걸 봤습니다.
이때, 모든 우리들의 반응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환희여야 합니다, 자축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비전, 소원, 꽃피우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다 제거해야만 된다.

이것은 부흥의 현상이 눈앞에 벌어진 것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전혀 이 부흥의 현상에 상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의심이에요.
부흥이라는 현상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 무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쫓아오느냐 이겁니다.
지금의 그 마음이라면 쫓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라면 부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의심하시고, 부흥을 회의하시고, 부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흥은 무효라 이겁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사이비집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의심은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 주님의 의심이 생겨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주님이 이 부흥의 현상을 의심하는 포인트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갖고 와서 주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받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결정되어진 갖고 싶은 것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살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옴으로써 일어나는 부흥, 이건 이단이요 사이비집단입니다.
이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부흥하는 현상 속에 속해 있는 무리들도 각자가 의심해야 되고,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도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이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의 집단이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갖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따져봤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된다는 계산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걸 받으려 하면서도, 소유를 다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이는 받아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모든 소유를 다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이라도 계산을 해보았느냐 이겁니다.
한번이라도 따져보았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 계산하는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따져봐야 될 시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구원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시간을 갖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따져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려야 되는 소유, 주님께서 주시려는 걸 받으려면 우리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가 뭘까요?
재물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재물도 소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

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 버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는 재산상의 물질상의 소유뿐만 아니라, 처자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결국 내 마음이 마음 안에 들여 놓고 있는 대상을 주님은 소유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 안으로 갖고 있는 것, 다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처자 부모 형제자매가 마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는 구원을 받으려면 계산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망대 비유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임금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돈이 내게 있는지 따져봤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건축해나가다가 나중에 자재를 살 비용이 똑 떨어져서 도저히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도중에 중단해버린다면 이게 무슨 망신이고 낭패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들이 건설을 하다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회사 자체가 부도 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만 명의 적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따져봤다가 이길 수 없으면 아예 화친을 청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잘 따져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잘 계산하고 따져보고 결론을 얻은 다음에 시작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아니, 구원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목마른 자는 와서 거저 마시고 굶주린 자도 와서 거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더군다나 가진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이 비용에 대한 얘기는 무엇인가?
이 내용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주방가구가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가구들이 설치된 곳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을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비싼 것, 싼 것이 있겠지만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냉장고를 집어넣게 됩니다.
냉장고라는 게 한번 사면 10년은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경품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경품이 당첨되어서 새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 냉장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쓰던 냉장고를 빼내서 새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헌 냉장고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새 냉장고를 산 게 아닙니다, 새 냉장고는 경품당첨으로 공짜로 생긴 거니까.
공짜로 생긴 이 새 냉장고를 내가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헌 냉장고가 있던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헌 냉장고를 딴 데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냉장고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헌 냉장고를 팔아서 산 것은 아닙니다마는 헌 냉장고를 버려야 새 냉장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내 마음 안에서 다 내버리라는 얘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꿈을 향한 소원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면서 다 버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이걸 다 버리면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려는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아버지 자신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서 내 마음 안에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부모 판다고 해서 하나님 살 가격이 충당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팔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 안으로 모셔 들여야 내가 아버지를 갖는 게 되는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에 모시려니까 자리가 필요해서 내 마음 안에 모셔두고 있던 이 세상의 부모님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내 처자를 버렸습니다, 형제와 자매, 처자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부모님, 큰 자리지요? 버렸지요, 처자, 마음에 더 큰 자리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 형제자매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돼요, 마지막 보루, 내 목숨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렸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한 비전, 소원, 다 버렸어요.
완전히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삶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소유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도대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너희 마음에 이미 나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소유,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보존시키고, 때 빼고 광내고, 10년 된 냉장고를 수리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새 냉장고를 주러 왔는데, 그 헌 냉장고를 치워야 새 냉장고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마음 안에 주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잘 계산을 해서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를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야지, 내가 주려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나를 만나기 전에 갖게 된 마음 안의 소유를 다 담고서는 덜렁덜렁 따라오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회지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가죽소파를 세트

로 얻어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얻어는 왔는데, 예배당 끝에 붙어있는 빈 공간 안으로 이 소파세트를 들여놓으려니까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빼내서 여기저기 쑤셔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 방송하는 데에 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소파 좋지 않습니까?'
'아, 좋은데 이 소파가 들어오니까 다른 아무것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소파에 사람이 앉을 기회는 많지도 않은데…'
시골교회에 누가 그렇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다 치워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딱 이 짝이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아버지를 우리 마음 안에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거 뭐 동서남북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주님이 주시려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자식 들여놓았으니까 이 자식 잘되라고 주님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인이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도 아예 대놓고,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소유, 부모, 처자, 형제자매, 목숨,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인생, 잘되게 해줄 거라고, 마음의 소유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때 빼고 광내게 해주는 게 주님이라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 아니라 망조에요, 그건 완전히 거름더미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거름더미라 이거에요.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를, 역사의 주관자를 나 개인의 아버지로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고, 아버지를 마음 안에 모셔 들여 놓으려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산해보고 예수 믿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 내 인생까지 다 버릴 때, 내 안에 들어온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내 부모님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처자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처자를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인생을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하라 이거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잘 계산해보고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들여놓든지,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서 부모 버릴 수 없고, 처자 버릴 수 없고, 내 인생 버릴 수 없으면 예수 믿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면서 계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 위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릴 것인지, 못 버리겠으면 주님 따르기를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계산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